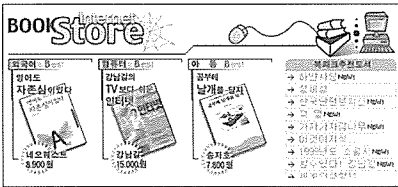




외국 초대형 인터넷회사 국내진출에 업계 비상 '인터넷시장을 지켜라'



▲ 아마존, 반즈앤노블 등 외국 인터넷 서점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50개 출판사가 공동으로 개설한 북파크 홈페이지.

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포털서비스업체들이 잇따라 국내에 상륙하면서 국내 인터넷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야후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가 2월부터 마이크로소프트네트워크(MSN)의 한글판 서비스를 시작했고 세계적인 포털서비스업체인 알타비스타, 라이코스, 넷스케이프센터 등이 올해 안에 한글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게다가 도서출판유통, 증권거래 등의 한국 인터넷시장을 겨냥한 미국계 회사들이 잇따라 노크, 한반도도 이제 국경없는 인터넷 전쟁터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통상압력이나 무역분쟁 없이 순식간에 국내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을 갖춰 국내 산업계까지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토종기업과 해외 초대형 업체와 대혈투가 시작되는 첫번째 무대는 도서출판유통시장. 인터넷서점으로 일약 세계

최대 도서출판유통업체로 떠오른 미국 아마존사와 아마존보다 매출이 더 큰 반즈&노블사가 각각 한국시장 진출을 타진중이다.

아마존사는 이미 국내 파트너를 물색중이며 반즈&노블사 또한 활발한 물밑 접촉에 나서고 있다. 이들의 전략은 인터넷을 통해 한글 도서를 취급, 한국의 도서유통시장을 완전 장악하겠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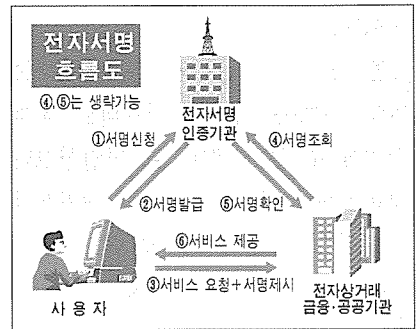
시장을 지키기 위한 토종기업들의 맞불작전도 본격화하고 있다. 민음사, 김영사, 두산동아, 한길사, 삼성출판사 등 국내 50개 출판사는 최근 데이콤 인터파크와 공동으로 인터넷 기반 도서출판 쇼핑몰 '북파크'(www.bookpark.com)를 개설,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아마존에 맞선 토종기업 50개사 공동의 한국형 인터넷 장터가 뜬 것이다.

미국 'E트레이드'사도 모 증권사와 한글주식거래 사이트 개설을 타진중이다. 이에 대항해 증권업계에서도 온라인매매 사이트를 잇따라 개설하는 등 시장지키기에 부심하고 있다. 야후 등 포털사이트에 맞선 네띠앙, 한메일넷 등 토종 포털업체들도 전자메일과 홈페이지 공간을 공짜로 제공하는 등의 파격적인 상품을 내놓고 반격에 나서고 있다.

이밖에 다른 분야의 미국 쇼핑몰들도 잇따라 한국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어 한·미 양국간의 인터넷시장 쟁탈전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자서명 7월부터 시행... 안방서 카드결제한다



▲ 전자서명 흐름도.

금년 하반기부터 우리 경제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는 대변혁이 시작된다. 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없게 되고, 신용카드 결제나 결제영수증에 사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컴퓨터에 만들어놓은 나만의 '전자서명' 하나면 집에서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고 전세 입주, 아파트 구입까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핵심 수단인 전자서명이 7월 1일부터 국내 처음으로 본격 시행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99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전자서명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전자서명이란 컴퓨터 사용자가 전

자상거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면서 상대방에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함께 전송하는 일종의 컴퓨터 파일. 전문적인 전자서명 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는다. 선진국의 경우 고도의 암호화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차단이나 변조, 위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전자서명법 발효 후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금융업무. 각종 예·적금, 대출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가 전자서명으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일도 이제는 집에서 컴퓨터로 척척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전입신고나 자동차신고 등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일상생활상의 각종 민원 업무도 전자서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전문업체인 인터파크 관계자는 “전자서명 인증기관이 없어 외국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국내 전자상거래시장이 본격적인 개화에 접어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자서명의 성공여부는 보안성. 만약 전자서명이 위·변조되거나 전자서명으로 이뤄진 돈거래 정보가 해킹당할 경우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자서명 위·변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보안기술 전문기관인 한국정보보호센터 내에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전자서명이 컴퓨터에 뜨는 순간 인증기관을 통해 전자서명의 진위와 서명자의 고객정보가 맞는지 여부를 순

식간에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선진국의 세계적인 인증기관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은행·증권·일반상품 등 분야별 공인인증기관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인터넷 자동접속 소프트웨어 인기몰이



▲ 인터넷 한국일보에서 무료배포하는 인터넷 접속 소프트웨어 ‘다이렉트웹’의 실행화면.

컴퓨터 초보자라도 복잡한 환경설정 절차없이 마우스만 눌러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자동접속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일보와 알파전산이 공동 개발해 1월 말부터 무료 배포하는 인터넷 자동접속 소프트웨어인 ‘다이렉트웹’이 한달여만에 1만여건 신청되는 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다이렉트웹은 인터넷 한국일보(www.hk.co.kr)에서 전송받아 PC에 설치하면 한번 클릭만으로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인터넷에 접속해주는 소프트웨어다. 이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인터넷환경을 맞추거나 전화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이 다이렉트웹 표시를 마우스로 한번만 눌러주면 한국통신의 인포슈퍼서비스인 ‘01410’과 ‘01411’에 자동 접속된다.

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웹 브라우저를 스스로 작동시킨다. 요금은 회원제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가입비는 없으며 분당 20원의 이용료만 내면 된다. 이용요금은 전화요금에 합산 청구된다. 신청자에게는 인터넷 전자우편 주소와 10MB용량의 개인홈페이지 공간을 무료로 제공한다. 다이렉트웹은 CD롬에 담아 우편으로도 보내준다. ☎(02-925-4400)

벤처기업 네오위즈도 지난해부터 ‘원클릭’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네오위즈사는 한국통신 코넷(Kornet)과 고속 전용회선을 연결해 인터넷접속서비스(ISP)를 제공하고 있다.

PC통신과 인터넷 계정(ID)없이도 1분당 20원이면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천리안-코넷 전화접속 인터넷(PPP)고객도 맨처음 자신의 ISP를 선택하면, 마우스 한번만으로 인터넷 정보검색이나 전자우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가지 운영체제 선택하는 하드디스크 개발

한대의 PC로 3가지 운영체제(OS)를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 3가지 운영체제를 설치,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투게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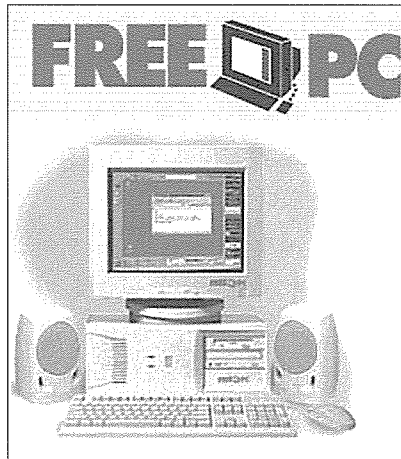
하드디스크 선택장치가 개발됐다. 컴퓨터 AS 및 업그레이드 업체인 911 컴퓨터는 한대의 PC에 여러 가지 운영체계를 설치해 놓고 원하는 것을 선택, 사용하는 하드디스크 선택장치 '투게더' (TOGETHER)를 최근 개발했다.

이 하드디스크 선택장치는 PC에 한글 또는 영문 윈도98, 95, NT, 리눅스, 유닉스, 도스, OS/2 등 운영체계 중 3가지를 설치해 놓고 컴퓨터를 사용할 때마다 원하는 운영체계를 골라 쓸 수 있도록 한 장치이다.

기존 컴퓨터는 하나의 하드디스크에 하나의 OS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컴퓨터 한대로 영문 윈도와 한글 윈도를 함께 사용하거나 윈도와 리눅스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어려웠다. 투게더 판매가격은 7만원. 911 컴퓨터 관계자는 "투게더는 해외거주자나 유학생, 국제 비즈니스맨 등 여러 가지 OS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하며 국내 공급은 물론 해외수출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컴퓨터 공짜시대 본격화 '퍼스널 컴퓨터(PC)를 무료로 드립니다'

호출기나 핸드폰에 이어 고가 제품인 컴퓨터에도 공짜 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의 프리PC사가 2월 초 컴퓨터의 무료 제공을 선언한데 이어 세계 최대의 컴퓨터 제조회사인 미국 컴팩사도 최근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고가의 컴퓨터를 무료로 주는 회사가 늘어날 전망이다.



▲ 미국 프리PC사는 광고를 보는 대가로 PC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온라인 광고를 화면에 실거나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을 노리고 컴퓨터를 사용자에게 무료 배포하는 새로운 전략을 선보이고 있다. 하드웨어가 아닌 서비스로 수익을 올리는 이같은 전략은 향후 컴퓨터산업의 수익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벤처기업 프리PC사가 컴퓨터 무료제공의 구상을 발표하자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려 이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회사는 당초 1만대의 컴퓨터를 준비했으나 접수 첫날 1백20만건이 접속됐고 그 가운데 신청자는 50만명에 달했다. 비싼 컴퓨터를 왜 공짜로 주는 것일까. 프리PC사의 경우 광고주 기업과 계약을 체결, 컴퓨터 화면상에 해당 기업의 광고를 게재한다. 광고 수입을 기초로 6백달러 상당의 새 컴퓨터를 고객에게 무료로 배포, 광고주 기업과 전자상거래업체가 간접적으로 컴퓨터에 보조금을 내는 것이다. 컴퓨터를 무료로 받은 이

용자는 일주일에 최소한 10시간 이상 컴퓨터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이용자는 10시간만 사용하면 컴퓨터 이용에 필요한 주변기기, 인터넷 접속, 전자메일 등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무료 컴퓨터가 창출해 내는 비즈니스는 통화요금에 의존하는 호출기나 휴대전화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거대하다.

광고업자 입장에서는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제공되는 텔레비전 광고에 비해, 특정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직접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프리PC사는 신청을 받을 때 연간수입, 가족구성, 직업, 네트워크 이용빈도, 취미 등에 대한 앙케이트를 실시해 광고주에게 유리한 이용자를 엄선한다.

이동통신의 경우 가입자 가운데 기본요금만 내 수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프리PC사는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네트워크상에서 소비성향이 높은 사용자만을 선별한다. 반면 전자상거래에 초점을 맞춘 컴퓨터 무료제공 회사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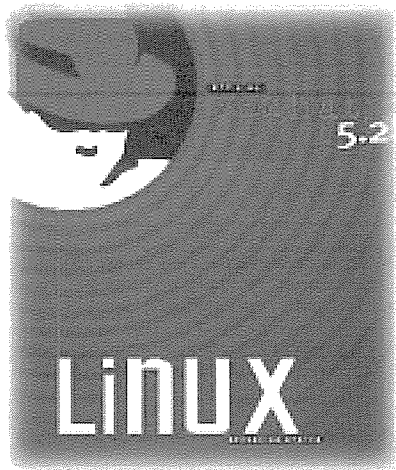
뉴욕의 윈스톱 커뮤니케이션사는 매월 최저 1백달러의 온라인 쇼핑을 하는 조건으로 애플 컴퓨터의 인기 기종 iMac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계약자는 총 3천6백달러의 물품을 구입해야 한다.

한편 무료 컴퓨터의 등장으로 컴퓨터 제조회사들의 가격인하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1년간 미국의 컴퓨터 평균가격은 약 30% 하락했다.

지난해 말에는 대당 1천달러 이하의 컴퓨터가 등장했고 올해 4백달러

이하의 컴퓨터 기종이 탄생할 것으로 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리눅스 도전에 고전



▲ 리눅스 판매를 지원하는 레드햇사의 로고.

전 세계 소프트웨어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핀란드의 한 대학생이 만든 '리눅스'라는 공개용 운영체제에 의해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다.

그동안 '공룡의 독점'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컴퓨터 사용자와 미국 정부의 견제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MS지만 불길처럼 번져가는 리눅스의 확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심각한 사태에 직면했다.

리눅스란 핀란드의 개인사용자가 개발, 프로그램 제작방법이 공개된 운영체제로 인텔의 CPU(중앙처리장치)나 선의 '스팍' 등의 CPU에서 작동하며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PC용 유닉스로도 인기가 높다. 레드햇이라는 회사는 이런 리눅스에 관리틀

등을 추가, 패키지화해 판매하고 지원하고 있다.

리눅스 사용자는 세계적으로 5백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세계 최대의 PC용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조업체인 인텔의 가세로 MS는 사면초가 상태다. 인텔은 최근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즈와 벤처기업 2개사 등과 함께 리눅스 응용프로그램 공급업체 중 하나인 레드햇소프트웨어에 출자하겠다고 밝히고 나선 것.

인텔과 넷스케이프 등 컴퓨터업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두회사가 리눅스를 지지할 경우 MS의 입지는 그만큼 좁아질 수 밖에 없다. 양사의 이같은 방침은 다른 응용프로그램 개발업체들을 자극, 리눅스용 응용프로그램 개발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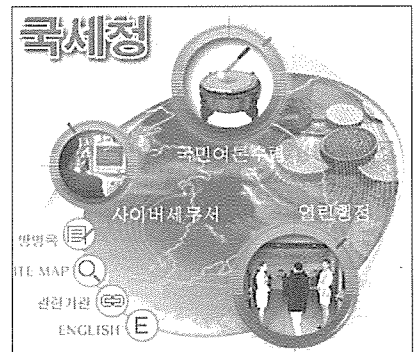
세계 최대의 데이터베이스 개발업체인 오라클을 비롯해 인포믹스, IBM 등도 자사의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리눅스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리눅스가 20여년간이나 세계 컴퓨터업계를 지배해온 MS의 철옹성과 같은 시장독점 상황을 과연 깨뜨릴 수 있을지가 컴퓨터업계 관계자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세청 '사이버세무서' 열어

인터넷을 통해 세무상담을 하고 세무관련 민원증명 서류도 예약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3월부터 사용자가 크게



▲ 국세청 홈페이지.

늘고있는 인터넷을 통해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를 다양화하기로 하고 인터넷에 국세청 홈페이지를 만들어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이버 세무서의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nta.go.kr>이다. 국세청은 이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세무상담을 받아 처리하는 것은 물론 민원서류 예약과 신고 및 민원서식 출력력을 가능케 함으로써 민원인들이 직접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인들은 또 이 망을 통해 기준시가 등 국세청의 기본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물론 창업정보나 공매물건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아직 인터넷상으로 본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즉각 실시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 납세자가 원하는 증명서류를 인터넷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이 홈페이지에 '국세청장과의 대화방'을 열어, 여론을 직접 듣고 이를 세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대화방을 탈세나 비리 및 외화도피 신고 등도 받아 처리하는 '국세신문고'로도 활용키로 했다. ①7